

김장 물가 '맵다 매워'...절임 배추 한 박스 5만원

일 오염수 방류에 소금값 오르고 택배·인건비 상승 등 영향 고춧가루 14%·쪽파 31%·생강 107%...속재료 가격도 들쭉 유통업계, 예약·할인판매 기획전 등 김장 물가 방어 나서

“물가가 너무 올라 올해 김장 비용 부담이 클 것 같아 걱정이네요.”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에 거주하는 김현임(여·51)씨는 오는 11월 말께 김장을 담을 생각이다. 여동생 둘과 함께 자매 셋이 주택을 짓고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한해에만 200~250포기 수준의 김장을 담근다고 한다.
김씨는 “매년 강원도에서 절임 배추를 구매해 김장을 담았는데, 올해 절임 배추 20kg 한 박스 가격이 5만원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4만5000원대에 비해 가격이 꽤 올랐다”고 말했다.
보통 20kg 1박스에는 10포기 정도의 배추가 들

어간다. 김씨 가족들이 250포기 김장을 담근다고 가정하면, 절임 배추 가격만 125만원 정도에 달한다.
김씨는 “이밖에 소금값도 많이 올랐고, 젓갈과 고춧가루 등 안 오를 게 없다”며 “워낙 김장을 많이 하다 보니 올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올해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 배추 가격이 오르는 등 김장에 들어가는 물가비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해남과 진도 등 전남지역 절임 배추 생산농가 등에 따르면 현재 절임 배추(20kg 기준) 가격은

5만원 선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평균 4만5000원 수준에 비해 5000원 상당 올랐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이다.
농가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 인건비가 올해 더 오른 데다, 소금값과 박스비, 택배비 등도 모두 오른 탓에 작년보다 절임 배추를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전남지역에 여름철 많은 비가 내려 작황이 좋지 못해 수확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배추 뿌리가 썩은 게 많아 작황이 좋지 않은 것도 절임 배추 가격 오름세에 한몫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배추 가격이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비싼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금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수요가 증가해 값이 오른 소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6826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7257원)보다 5.93% 저렴한 것이지만, 여전히 평년(6442원)에 비해서는 5.96% 비싼 것이다. 도매가격 역시 10kg 기준 1만7200원으로 평년(1만4029원)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또 굵은소금(5kg) 소매가격은 1만4217원으로 지난해(1만195원)보다 27% 올랐고, 평년(8249원)에 비해서는 무려 72.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김장의 필수 재료인 고춧가루(국산 1kg)는 1년 전 3만1545원에서 올 현재 3만5986원으로 14.08% 올랐고, 건조후(화건·600g)는 1만8394원으로 지난해(1만6214원)에 비해 13.45% 상승했다. 쪽파도 1kg에 1만648원으로 전년(8131원) 무려 30.96%, 국산 생강은 1kg 기준 작년 8768원에 비해 1만8147원으로 106.97% 급등했다.
올해 서민들의 김장 물가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

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김장 물가 부담이 커지자 유통업계도 ‘김장 물가 방어’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해남·영월산 절임 배추 예약 판매를 시작, 해남 절임 배추(20kg)를 행사 카드 결제 시 국내 최저가로 내놓았다. 또 김장철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 초 고춧가루, 젓갈, 무, 파, 마늘 등 김장 속 재료에 대한 기획 할인전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마트도 이달 말부터 절임 배추 예약판매에 들어가기로 하고 판매 가격과 산지 물량 수급 등을 조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도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장용 절임 배추를 예약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절임 배추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해남 지역 지정 농가에서 사전 기획 물량 10%를 확보하는 등 전체 취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건설사 돈 빌리기 쉬워진다...PF대출 보증 확대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20일부터 보증 한도 확대·도급 순위 700위 폐지

오는 2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가 확대된다. 건설사들이 돈을 빌리기 쉽도록 길을 터 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택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HUG,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HUG는 이달 20일부터 공적 보증 확대 조치를 시행해 업체들이 PF 보증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F 대출 보증의 보증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PF 대출 보증 요건인

‘시공사 도급 순위 700위’ 기준은 폐지한다.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한다.
HUG는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완화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분양 PF 보증 요건도 20일부터 완화한다.
미분양 PF 보증은 5조원 공급을 목표로 올해 1월 출시했으나, 10개월가량 지난 지금까지 이용 실적만 한 건도 없다.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제공한다는 기존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 할인 외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 품목(옵션) 할인, 공사비 현실화 등의 보증 요건을 추가했다.
HUG는 PF 대출 보증 확대를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PF 특별 상담창구를 연다. 이 창구를 통해 보

증 심사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지원은 이달 18일부터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청년과 서민층이 많이 찾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 금리는 연 3.5~4.3%다.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7천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주택금융공사는 PF 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방식을 다양화한다.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하는 보증 신상품을 내놓고, 기존 PF 보증의 경우 보증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주식 인기 한풀 꺾여

지난달 거래대금 3조212억...전월대비 36% 감소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주식 거래가 전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주 열풍이 한 풀 꺾이던데다 중국의 경기둔화, 긴축 장기화 우려와 미국의 고금리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반적인 증시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9월 증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의 지난달 주식 매수 거래대금은 3조212억2천100만 원, 전월(5조912억2천100만 원)보다 36.93%(1조8799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주식 매도 거래대금은 4조9954억 원에서 3조1619억 원으로 36.70%(1조8335억 원) 줄었다.
주식 시장별 보면 코스피 매수대금은 지난달 2조4778억 원에서 1조3197억 원으로 줄었고 매도대금은 2조4027억 원에서 1조2882억 원으로 감소했다.
코스닥 매수대금도 감소(2조6133억 원→1조

8915억 원)였으며, 매도대금 역시 2조5926억 원에서 1조8736억 원으로 줄었다.
지역민들은 지난달 POSCO홀딩스 주식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으며, 테마주 열풍에 최근 비교적 거래가 많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사고 팔 종목 2위에 올랐다.
코스피에선 줄곧 거래종목 1위를 기록하던 에코프로가 한 단계 내려앉으며 포스코DX에 자리를 내줬다.
광주·전남 38개 상장사의 지난달 시가총액은 17조7071억 원으로, 전월(18조3896억 원)보다 3.71%(6825억 원) 줄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한국전력(1283억 원·1.12%↑)과 부국철강(11억 원·1.62%↑)은 시총이 증가했고, 금로타이어(-976억 원·-6.88%)와 조선내화(-847억 원·-23.33%)는 줄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박셀바이오(-2192억 원·-34.29%)와 위니아에이드(-344억 원·-59.13%)는 시총이 줄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전남 도시가스 소비자는 봉?

사업자, ‘법에도 없는’ 분담금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 해양에너지 주주, 당기순이익의 1.6배 넘는 배당금 챙겨

도시가스 사업자가 분담금을 주민에게 과도하게 전가해 사업자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광주전역과 전남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해양에너지의 주주는 당기순이익을 1.6배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광주시 등 6대 광역시의 표준투자비와 적용률, 납부대상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민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전국 도시가스사는 건설비용품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공사

후 남는 공사비를 정산해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도하게 배당금을 나누기보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와 공급시설에 재투자하고 분담금과 가스요금을 인화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로 연장하는 인입배관 설치 분담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대구 대전, 부산 등은 분담금 감면을 시행 중인 반면, 광주는 소비자에게 부담하고 있었는데, 도시가스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민 의원은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 도시가스 공급 업체 해양에너지는 지난해 195억7861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320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상황(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은 163.87%에 달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인 234억원보다도 많았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2021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가 지분을 100% 인수 완료했다. 맥쿼리가 해양에너지와 세라벌도시가스㈜ 지분을 모두 사들이는데 들인 금액은 모두 7951억원이었다. 맥쿼리는 해양에너지의 이익과는 별개로 인수 당시 약속한 배당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10일 광주 대인시장을 찾은 광주은행 직원들이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전통시장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장금이 결연’ 대인시장 등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0일 광주 대인시장에서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가두캠페인과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말바우 시장 등 광주·전남 4개 전통시장과 체결한 ‘장금(場金)이 결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전통시장 내 상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방법을 담은 안내장을 전달하며 홍보했다.

또 상인회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시간을 마련해, 금융사기 유형별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조치, 자영업자 피해사례, 조심해야 할 불법금융 등 소상공인이 겪기 쉬운 금융사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광주은행 정창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사랑의 1004운동’ 모금 성금 전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11일 광산구청에서 ‘사랑의 1004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
‘사랑의 1004운동’은 광주 관내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농협 광주본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고성신 본부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내춘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진곤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했



으며, 총 17개 세대에 1700만원의 수술·치료비를 지원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광주 관내 농협임직원들의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한다”며 “농협광주본부는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이웃에게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0.08(+47.50)
↑ 코스닥	817.12(+22.12)
↓ 금리(국고채 3년)	3.953(-0.044)
↓ 환율(USD)	1338.70(-10.80)

전영진 한전공대 초대 상임감사 취임

전영진(사진) 전 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장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대 상임감사에 취임했다.
전 상임감사는 공인회계사로 2001년 감사원에서 입사해, 산업금융감사국 3과장, 방위사업청 감사관, 국민제안감사2국장 등을 지냈다.
전 상임감사는 감사 전문성과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수립하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